

## 의학콘텐츠로서의 단방요법 활용화 방안

이선아, 조원준

한국한의학연구원

###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Folk Remedies to the Contents of Medicine

Lee Suna, Chough Wonjo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Folk Remedies symbolize the medical art of the common people, and contain their special emotion and colloquial expressions. They are medical treatments in which the medical history and the tradition and the soul of a people are incorporated. They are handed down in various ways. This study introduces some of folk remedies. For example, powder of tigers' bones heals neuralgia. Rice wine brewing up with ginger is effective in a cold. Water boiling with safflower does good in neuralgia. Pasting herba houttuyniae takes effect in skin disease. To Decoct and drink old hardy orange is effective in urticaria. Water boiling with fructus corni alleviates a fever. Camellia oil or rhizoma cnidii or iris is used for the extermination of vermin and the antiseptic. In the en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se remedies to the resources of industry and education will be discussed.

key words : Folk Remedy,

### I. 서론

한의학이 전통의학이라고 하지만 정작 한의학계에서는 우리 고유의 단방요법에 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처방이 복합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아직까지도 단방요법에 대한 전승 의지는 매우 높다. 동시에 지금 우리는 현대의학과 중의학과 의 사이에서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있다. 많은 중의학자들 또한 한의학에 대해 뿌리가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전통의학이 생명력과 생활의 곳곳에 뿌리박혀 있는 우리 고유의 의학을 체계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

해서는 심오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처방 및 치료법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 생활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방요법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본 연구는 매우 단순한 처방, 그것도 생활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단방들을 정리하여 콘텐츠화 하자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오랜기간동안 사용되어진 단방요법들을 정리하여 주요 효능을 분석 검토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하지만 단방요법들이 이론적으로 분석되고 제품화된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 및 한의학적 명성도 세계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계승되고 미래의 산업적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내용을 콘텐츠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의학의 전승이 치료기술에만 치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콘텐츠화 방안은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전통문화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문화컨텐츠화가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전통의학인 단방요법을 의학자원으로써 세계화시키고 산업자원화하기

□ 접수 ▶ 2007년 2월 14일 수정 ▶ 2007년 4월 4일 채택 ▶ 2007년 4월 16일

□ 교신저자 ▶ 조원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449 Fax 042-863-9463 E-mail wjcho@kiom.re.kr

위해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문화산업컨텐츠화하여 자리매김부터 해야 되겠다.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전통의학의 계승하고 콘텐츠화 시행사업은 미래에 전승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단방요법들에 대한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방요법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의 생활에 스며져 있고, 사용된 사례들을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무의식중에 늘 쓰여진 단방요법들의 대상들을 어떻게 콘텐츠화 할 것인지 그 이미지를 미흡하게나마 콘텐츠화방안을 제시하여 보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의 과정은 전통의학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더불어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을 대표하는 단방요법에 대한 교육적 산업적 활용만이 한의학의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요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겠다.

## II. 민간에 전해오는 단방요법

민간에 전해져 오는 단방요법은 우리 민중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즉, 단방요법은 한 사람에게 의해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치료법이 전해져오는 동안의 시대상과 그 시대를 살았던 민중들의 생활방식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생활방식에서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조상들이 오랜시간에 걸쳐 경험하고 체험한 지혜를 알아듣지 못하고, 전통의 골레를 벗어나려는데 급급해한 나머지, 황당한 약물들에 후손들을 중독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단방요법은 비법 중의 비법이며 그 비법을 전수받음이 오늘날의 한의학이다. 따라서 한의학은 우리의 삶속에서 오랜시간을 걸쳐 알게 된 내용들로 우리 선조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여 효과를 본 것들이다. 더구나 당시 자연재해 등으로 여기저기서 굶주려 죽는 상황 하에서 일반 백성들이 약재를 갖추기란 힘들었고, 또 和劑를 내어 받기도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들판에 있는 풀뿌리를 혹은 자르고 혹은 가루내고 혹은 생으로 복용하며 살아나기도 하고 혹은 허깨비처럼 힘없이 죽어가면서 터득한 지혜만이 고여 있는 것들이다.

이렇듯 단방요법이 자료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그다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 중에는 첫째는 방대한 자료에 내용색이 없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료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인도, 이집트, 베트남, 그리스, 이란, 멕시코 등 여러국가에서는 민간에 전해져 오는 치료법 대한 다양한 자료가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미개척분야로 남아 있다.<sup>1)</sup> 따라서 단방요법이 의학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의학 콘텐츠 분야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단방요법들을 살펴보면 일반대중들에게는 낯설지 않는 치료법들이다. 하지만 이들 단방요법의 치료비법이 실제로 효과를 얻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험으로만 터득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고차원적인 기술과 섬세함, 그리고 미신적이라 할 수 있는 각별한 정성까지도 요구하기도 한다.

셋째는, 단방요법이 여기저기에 소개되면, 환자 자신한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지 않고 그 주제만 보고 복용법과는 상관없이 먹다 보면 부작용이 온다. 이런 것들은 大方을 썼을 때처럼 대부분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어 자기 기운에 부담이 가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또는 영양을 지나치게 하여 소화불량을 불러 일으켜서 탈을 내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부작용을 겪고 나면 원인 규명없이 다만 민간요법에 대하여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단방을 이용한 치료법은 많은 착오와 실패를 반복한 것들이다. 우리 조상들은 수백년 전부터 세대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약초들의 효능과 치료방법들을 전해주고 있다. 치료법 뿐만 아니라 현대적 생활에서도 유익한 엄청난 비법들을 전수해 주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병증에 따라 치료하는 처방을 적고 그 병증에 따른 ‘단방’에 대하여 적어놓고 있다. 예컨대, 『동의보감』 「잡병편」 소아편에서는 70가지의 단방요법이, 부인편에는 52종의 단방이 소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벽역의서에도 단방약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영토 안에서 생산재배 가능한 약재들이다. 향유, 적소두, 총, 구, 산, 강, 온무청즙, 응적계, 애, 송채, 녹두죽 등과 같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식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고, 죽, 건갈, 부평, 송엽 등과 같은 것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 인분즙, 부인월경수, 저시, 지룡즙과 같은 것도 활용하였다. 이처럼 단방을

1) 기젤라 그라이헨 편저, 박혜영 옮김, 『사라진 문명의 치료지식을 찾아서』, 이가서, 2005.

전반적으로 수천년 동안 각종 병고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던 약초를 이용한 치료술과 그 약초의 효능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고대 민간의학자들과 처방집들에 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활용함으로써 복합처방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기재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돌림병의 급박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였다. 즉, 과거 대부분의 백성들이나 窮村僻地人들은 값비싼 약재로 치료할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이러한 향약을 이용한 질병치료가 지속적으로 주도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은 벽역의서에서 단방을 활용한 돌림병의 치료와 예방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된다. 2) 이와같이 의학문헌에는 어떤 병증에 대한 처방 및 침뜸요법 뿐만 아니라 단방에 대하여 항상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몇가지 문헌기록에서 발췌하여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한다.

### 1. 『미암일기』에서 보여지는 단방요법

단방요법은 경제적 이유때문만이 아니라 효능적으로도 매우 높아 위정자들로부터도 각광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중종조에서 명종조를 거쳐 선조조에 이르기까지 조정에서 활약한 유희춘의 일기에 실린 내용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제 虎骨을 담당하는 畝人이 호랑이뼈가루를 쥐서 술에 타 마셨다. 이것은 신경통을 다스린다.<sup>3)</sup>

홍화蕩으로 목욕을 했다.<sup>4)</sup>

밤에 생강을 넣어 달인 술을 마셨다. 갑자기 감기를 물리치기 위해서이다.<sup>5)</sup>

손부가 머리에 부스럼이 생겨서 柴草 2냥을 새로 길어온 물에 담갔다 먹으라고 하다.

이는 16세기 중반 학자요 정치가인 미암 유희춘(1513-1577)의 일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450여년전에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 학식이 있으며 거기에다가 당대의 명의를인 양예수, 허준으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고 있는 미암도 이러한 처방들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암은 직접 처방을 쓰기도 하고 손부의 머리에 부스럼이 생긴 이유가 열이 성해서 위로 치솟았기

때문이라는 의학적 전문도 갖추고 있음을 이 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위의 사례는, 지금도 종종 사용하는 단방요법들이다. 웬만한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는 코끝을 저며내는 생강차를 마신다. 그러면 냄새에 의해서인지 약재의 성분에 의해서인지 막힌 코가 터진다. 생강 향기가 든 술을 마시다 보면 으슬 으슬 춥던 몸이 어느새 따스해지고 개운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할머니들은 골다공증과 관절염으로 다리가 쭈신다며 홍화차를 마신다. 그러면 금방 약발을 받고 쭈시던 다리가 멀쩡해진다고 한다.

### 2. 구전되어 오는 단방요법

그런가 하면 언제 누구에 의하여 사용되어진 것인지 설명이 없이 다만 효능만 전수 되어 오는 단방요법들이 있다. 몇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피부병에는 어성초를 찢어서 바른다.

가래뿔이 섰을 경우에는 天南星 뿌리를 달여 먹는다.

낮 등 농기구에 다쳤을 때는 지네기름을 바른다.

닭고기를 먹고 체하였을 때는 봉숭아대를 삶아 먹는다.

더위를 먹으면 익모초 생즙을 먹는다.

두드러기에는 묵은 탕자를 달여 먹는다.

해수 기침에 말린 애벌레를 고아 먹인다.

해열에는 산수유 열매를 씨를 빼고 우려 마신다.

주근깨에는 생가지나 팔꽃을 으깨어 붙여주면 없어진다.

과음 후에 구토 및 수족 떨리는 증상에는 생연뿌리의 즙을 복용하면 특효가 있다.

기침이 심할 때에는 도라지, 건강, 울무쌀을 섞어서 가루를 내어 뜨거운 물에 마시면 효과가 있다.

중풍이 심하여 입과 눈이 돌아가고 반신불수가 되었을 때에는 오가피 3돈과 계피 1돈을 술에 달여서 한잔씩 마시면 효과가 있다.

습진에는 봉숭아 잎을 찢어서 즙을 종종 발라주면 효과가 있다.<sup>6)</sup>

2) 조원준, 「16-17세기 조선의 벽역의서를 통해 살펴본 은역학의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2006;19(2):43-44.

3) 유희춘, 『미암일기초』, 1569년, 6월 1일자.

4) 유희춘, 『미암일기초』, 1569년, 윤6월 15일자.

5)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0년, 12월 29일자.

6) 이 사례들은 각 민속지에 소개되어 있는 사례중에서 친근한 약재로 특별한 효험이 있는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어느 민족이나 다 가지고 있는 치료법이다. 예컨대, 인도의 단방치료법을 바산트레드지움, 이호준웁김, 『아유르베다』, 관음출판사, 2003년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욱뿌리는 항바이러스, 항박테라제도로 사용되며, 생강은 편두통 및 복부팽만 치료에 사용하고, 커피는 담석을 막아주는 것으로, 그리고 담배는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되는 암에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마자씨는 강력한

이러한 사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민중들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약이 귀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여러 가지 풀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를 꺼내서 치료해 주었다. 5월 단오날이면 언제나 더위를 먹지 말라고 쓰디쓴 익모초즙을 먹었다.<sup>7)</sup> 또한 실제로 어성초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식물로 방사능 치료와 피부병 치료에 특효라고 한다.

### 3. 기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단방

이 밖에도 우리민족의 의학기술 뿐만 아니라 생활의식, 생활수준 등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는 동백기름이다. 동백기름은 머릿기름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기름이 비누나 향료로 변하면 머리의 윤기뿐만 아니라 이나 서개가 맥을 못추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동백의 수액으로 재래변소를 소독하기도 하며 방부제 등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한다.

둘째는 서적의 부식과 해충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조선시대 장서각이나 史庫에 서적을 보관할 때 특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습기와 해충 방지이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포쇄를 행한 서적을 훼손을 막기 위하여 상자에 넣었다. 상자에 넣기 위해서는 우선 붉은 보자기로 책을 싼 후 기름종이로 덮은 다음 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川芎과 菖蒲같은 약재를 넣었다. 약제는 한 켤짜에 3斗 6升 5合 혹은 2斗를 넣었다고 한다.<sup>8)</sup>

이러한 방법이 전근대적 방식이라고 단정지를 게 아니라 2000여년 동안 전승되어 온 우리의 지식이며, 따라서 진부한 방법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현대 의학물질의 재발견의 방안으로 연구되어야 하겠다.

## Ⅲ. 단방요법 활용방안

한의학의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

하제로, 피마자 기름은 피부질환 치료제로, 뿌리는 두통 치료제로, 잎은 구토제, 발모제로 사용한다. 파파야는 파킨슨병 치료제로 사용하며, 식류껍질즙은 춘충을 없애는 특효약, 무화과는 배변촉진제로 사용하였다.

7) 5월 단오날에 먹는 생익모초즙은 아마도 더위를 먹지 말라는 조처였던 것 같다.

8) 장순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서 조선시대의 사관」, 『대동사학』, 대동사학회, 2005:4:77.

하여서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단방요법들을 연계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제품개발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단방요법을 활용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전통의학의 현대적 제품개발과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현대화, 과학화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화 하여 효과적으로 미래까지 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생활수준에 전통방법들이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핵심이 된다.

중국의 경우, 민간에서 수 천년에 걸쳐 전수되어 오는 각 소수민족의 치료법을 중국화 하여 전 세계로 그 기술을 널리 알리고, 급기야 한방치료의 보조요법 혹은 대체요법으로서의 가치 등에 새롭게 착안을 하고 있다. 우리도 단방요법을 통하여 긴밀하게 관련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단방요법을 현대적 의학에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방치료요법을 이용하여 생활제품이나 신약을 개발하며, 또 의학문화자료 등을 이용하여서는 문화산업의 시나리오나 창작소재로 제공하여 교육적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 1. 교육적 활용방안

21세기 산업을 규정짓는 특징은 문화산업사회, 정보화영상시대이다. 따라서 의학문헌 자료를 수집, 정리, 기록하여 그 정보를 대상으로 올바른 의학문화 전승과 재창조 할 수 있는 연구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상호 소통의 방법에서도 정보가 도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의학 및 의학문화를 개발하여 현대에 맞게 접목시켜 과거와 미래를 연결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단방요법의 교육적 활용방안의 방식은 세대간의 큰 간격으로 확실한 성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겠다. 하지만 현대의 다양한 불거리가 많음에도 교육적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는 내용들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단방요법을 다양한 교육적프로그램을 개발에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교육적 방안 등은 강연회나 세미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적인 의학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통의학을 이용한 교육적 활용방법은 여러 가지로 착안할 수 있다. 유형별로 교육적 효과가 높을 수 있는 사례들을 짐작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체험학습, 현장학습 등 다양한 체험 컨설팅을 의

되 운영하는 방법이다. 의학적 유물로 꾸려진 박물관을 운영한다. 의학유물들 예컨대, 다양한 약장 등을 전시하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직접 종이상자로 약장을 만드는 체험을 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관람객의 대부분이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들이므로 다 함께 처음 보는 물건들을 만들어 보는 등 동심의 세계로 이끈다. 이는 종이접기 등을 비롯해 한지 공예, 그림장식 등 종이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도 더불어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야외에서 생지황 등 약재들을 캐는 것, 약재 등을 보여주는 것, 약재 등을 뒤는 것 등 다양한 광경을 연출해 준다.

둘째는, 현대는 디지털 기계시대이다. 이에 발맞추어 침구동인에 혈자리에 음향 등 여러 가지 테마별로 인형을 만들어 전시해 놓는다. 즉, 빛으로 보여지는 침구동인, 소리로 혈자리를 알려주는 침구동인, 혈자리에 적용되는 혈맥을 찾아 들어가는 침구동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먹어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체도에서 어느 특정 부분을 손으로 누르면 증상과 함께 거기에 효능이 있는 단방요법들에 대한 설명이다. 예컨대 인후 부분을 누르면 기관지염에는 길경이 좋다라던가, 길경은 도라지라는 설명을 하는 등 세심한 교육적 내용이 담긴 것들과 함께 길경 삶은 물을 마셔보게 하는 것이다.

넷째로는 문화컨텐츠자료실 구축이다. 언제 어디서나 PSP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 자신이 찾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고,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실지 의학인물이나 약재 사진등을 볼 수 있도록 동영상자료를 제작 상영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의 의미를 살리는 방법이다.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정성 가득한 마음을 담은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정화수 앞에 기도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이색적 체험장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부모를 위하여 혹은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식을 위하여 단지, 할고하였던 내용들을 이야기식으로 엮은 설화를 이미지로 방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손가락을 끊거나 다리를 잘라 피를 내어 복약케 하였다는 것이 의약상의 효과로 보아서는 어떠한지 모르나 그 정성이나 효도 등에 대하여 또다른 인물창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교육적 측면에서도 어느정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전통에 대한 이해가 앞서지 않는 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겠다.

이렇듯 실제로 체험만이 선조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또한 이러한 영상만이 미래에 전승할 수 있겠다.

## 2. 산업적 활용방안

단방요법 뿐만 아니라 한의학을 직접 특화, 전문화만이 대중화 할 수 있으며 미래에 전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특화한다는 것은 시장성을 확보한다는 것이요 대중화가 되면 세계의 중심에 선다는 것이요 또한 미래에 전승된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산업적 활용방안은 특화된 아이디어와 전문화 노력에 힘써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단방요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환자 완치율을 보인 처방전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치료과정의 세밀한 내역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자료의 활용과 임상시험 등 근거확보를 위한 기준제시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그보다도, 앞에서 살펴본 단방요법 사례들을 중심으로 일차적 시장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다. 먼저, 생활에서 필요한 살충제, 살균제, 제습제에 관한 제품을 연구 생산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옛 선조들이 책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붉은 보자기이다. 해충들과 붉은 색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川芎과 菖蒲의 약재를 연구하여 살충제와 제습제를 생산하는 방안이다. 또한 살충 및 제습에 白芨布가 미치는 영향도 함께 연구되어야 하겠다. 물론 동백을 연구하여 살균, 방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연구 제품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다.

둘째로는 여성초를 이용한 방사능 물질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방사능 해독제품과 피부연고제를 생산한다.

셋째로는 단방요법을 의술적 방법으로만 전승할 것이 아니라 예술화 상품화를 시켜야 한다. 따라서 실지 드라마나 영화 등에 소재를 제공하여 의학적 특징이 영상 이미지로 상영되어 시각적 호소력을 촉발시켜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속의 주인공에 의학적 내용을 등장시켜 시청자들로 하여금 전통의학에 대해 친근하고 익숙한 내용임을 부각시킨다. 영상화만이 전통의학을 면면히 전승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넷째로는 의학문화를 테마로 한 전통의학역사 문화 테마파크 마련이다. 현재 한의학에 관한 의학자원 테마파크가 없다. 의학문화를 재현하고 의학자료를 집성하고, 의학적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테마파크장을 마련하여 의학이벤트, 의학적 휴식시설 등 다양한 중심축위에서 의학문화를 이해하는 산실을 제공하게 한다.

## IV. 결 론

5천여년에 걸쳐 전승되어 오는 단방요법들은 우리 민족의 의술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오늘날 한의학의 기반이 되었다고 본다. 즉, 단방요법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얼과 혼이 담긴 치료비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비법들이 우리 생활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그리고 더 많은 지혜를 요구하며, 전수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전승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단방요법을 문헌적으로 정리하여 보려고 하였다가 산업자원화하고 교육자원으로 활용화하는 방법을 예시해 보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상호 보완 연계하여 연구하는데 단방요법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 민중의 삶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때마다 효능을 발휘하였던 단방요법들 예컨대, 생강을 넣고 달인 술은 감기에 효과가 있다, 홍화물은 신경통에 좋다, 피부병에는 어성초를 바른다, 낮 등에 쇠에 다쳤을 때는 지네기름을 바른다, 두드러기에는 묵은탕자를 달여먹는다, 해열제로는 산수유를 달여 마신다, 해충제거나 방부제 등으로는 동백기름 또는 천궁과 창포 등을 사용하였다, 등등의 것들을 산업기술로 연구 재생산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한의학적인 제품생산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단방요법 전승이 아니라, 민중들의 적극적 삶의 방식, 자연생태를 이용한 창조적인 약제기술 발견 등에 흥미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단방요법의 콘텐츠화 방안을 처음으로 다룬 이 글은 내용에 한계가 있을 것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의학적 느낌없이 사소한 내용을 장황하게 떠벌린 것이 아닌가 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회를 보아 보완할 계획이다.

## V. 참고문헌

1. 기젤라 그라이헨 편저, 박해영 옮김, 『사라진 문명의 치료지식을 찾아서』, 이가서, 2005.
2. 조원준, 「16-17세기 조선의 벽역의서를 통해 살펴본 은역학의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2006;19(2).
3. 유희춘, 조선사편수회편, 『미암일기초』, 1938.
4. 바산트레드지움, 이호준 옮김, 『아유르베다』, 관음출판사, 2003.
5. 장순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서 조선시대의 사관」, 『대동사학』, 대동사학회, 2005;4.